

U.S. STOCK · MOMENTUM TRADING

급등주.

호재를 읽고
매매하는 법

WRITTEN BY

쉽다쉬웁

목차

—	시작하기 전에	03
	PREFACE	
01	나는 누구인가?	04
	한 번의 폭발적인 수익. 그리고 한 번의 완전한 붕괴.	
02	호재 파악하기 [2025년]	09
	진짜 호재와 가짜 호재를 구분하는 법.	
03	호재 분석하기 [2026년]	17
	호재를 1~2분 안에 분석하는 흐름.	
04	나만의 단타 매매법	25
	진입, 비중, 매도, 그리고 심리.	
—	이 글을 마치며	31
	EPILOGUE	

PREFACE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은 투자를 권유하는 책이 아니다. 내가 미국 주식, 그중에서도 급등주를 매매하면서 직접 깨지고 직접 회복하면서 익힌 방법을 정리한 글이다.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니다. 큰 회사에서 자금을 굴려본 경험도 없다. 그저 시장에서 한 번 크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평범한 개인 투자자다.

그래서 이 책에 적힌 내용이 100% 정답이라고 말할 생각은 없다. "이런 방식으로 매매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

DISCLAIMER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누구도 대신 책임져주지 않는다. 이 점만큼은 처음부터 분명히 짚고 가자.

CHAPTER ONE

01

나는 누구인가?

한 번의 폭발적인 수익. 그리고 한 번의 완전한 붕괴.
그 사이에서 내가 배운 것들.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내가 처음 주식을 시작한 건 20대 초반이었다. 그때는 코인이 한창 유행이었다. 주변에서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전부 잃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코인이 너무 위험해 보였다. 차트가 24시간 돌아가고, 변동성도 지나치게 컸다.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발을 들였다.

운이 좋았던 건지, 감이 좋았던 건지, 시작하자마자 계좌가 빠르게 불어났다. 그때 진심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나, 진짜 재능 있는 거 아닐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생각이 모든 사고의 시작이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그땐 몰랐다.

빚투의 쓴맛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나는 결국 대출을 받았다. 시드를 키워서 매일 밤 미국 장이 열리는 시간만 기다렸다. 자고 일어나면 잔고가 불어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RESULT

얼마 가지 못해 전액 손실.

이유도 단순하다. 지금 와서 분석해 보면 너무 뻔하다.

- 거래량 확인 없이 뇌동 매매. 누가 좋다고 하면 사고, 차트가 예뻐 보이면 샀다.
- 조금만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
- 그리고 다시 오르면 또 진입. 정확히 고점에서 다시 잡았다.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면 무조건 잃는다. 매수도 충동, 매도도 충동, 재매수도 충동. 시장은 충동에 가장 가혹하다.

후퇴, 그리고 공부

빚만 남게 되었고 주식은 한동안 쉬었다.

대신 책을 읽었다. 매매 기법 책만 10권 넘게 본 것 같다.

그리고 아주 작은 시드로 감만 익혔다. 큰돈으로 하지 않았다. 어차피 큰돈으로 했다가는 또 똑같이 깨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시기가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했다. 책을 읽고 차트를 보고, 작은 돈으로 진입과 청산만 반복했다. 큰 수익은 없었다. 그래도 "감"이라는 게 조금씩 잡혔다.

두 번째 도전

시간이 지나 다시 시작했다. 첫 번째 때와는 달랐다. 자만하지 않으려 했다.

수익이 나면 일정 부분은 출금해서 자리를 잡고, 다시 작은 시드로 진입하는 식으로 흐름을 끊어가며 매매했다. 물론 중간에 손실 구간도 있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꾸준히 회복하고 있다. 수익이 났던 자금은 일정 부분 스테이킹으로 굴리면서 매매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줄이는 식으로 운용 중이다.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

나는 실력이 뛰어나서 수익을 낸 게 아니다. 단지 호재를 빠르게 캐치하는 감을 익혔고, 어떤 뉴스가 진짜 호재인지 가짜 호재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됐을 뿐이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수익 금액은 다루지 않는다. 그건 사람마다 시드 크기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중요한 건 방법론이다. "어떻게 종목을 거르는가", "언제 사고 언제 파는가", "어떤 종목을 절대 사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이 시드 크기와 무관하게 통용된다.

이 책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세 가지다.

CORE MESSAGE

첫째, 급하게 매매하지 마라.

둘째, 처음에는 반드시 작은 돈으로 감을 익혀라.

셋째, 커뮤니티는 웃는 용도로만 사용해라.

이 세 가지만 지켰어도 나는 빚을 지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이 책을 읽는 사람만큼은, 나처럼 같은 자리에서 깨지지 않았으면 한다.

02

호재 파악하기

진짜 호재와 가짜 호재를 구분하는 것.
이 한 가지만 익혀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 챕터부터가 본론이다. 급등주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목 발굴이 아니다.

KEY POINT

"이게 진짜 호재인가, 시장을 털기 위한 뉴스인가"를 구분하는 것.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익혀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미리 말해두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지금까지 써온 방식이다. 100% 정답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는다. 다만 나는 이 방법으로 큰 손실 없이 매매를 이어왔다.

호재는 어디서 보는가 — Stocktitan

나는 stocktitan이라는 사이트를 사용한다.

이곳은 실시간으로 호재가 올라오는 사이트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뉴스는 자체적으로 걸러주고, 강하다고 판단되는 호재만 모아서 띄워준다. 시간은 1분 단위로 갱신되지만, 경험상 호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따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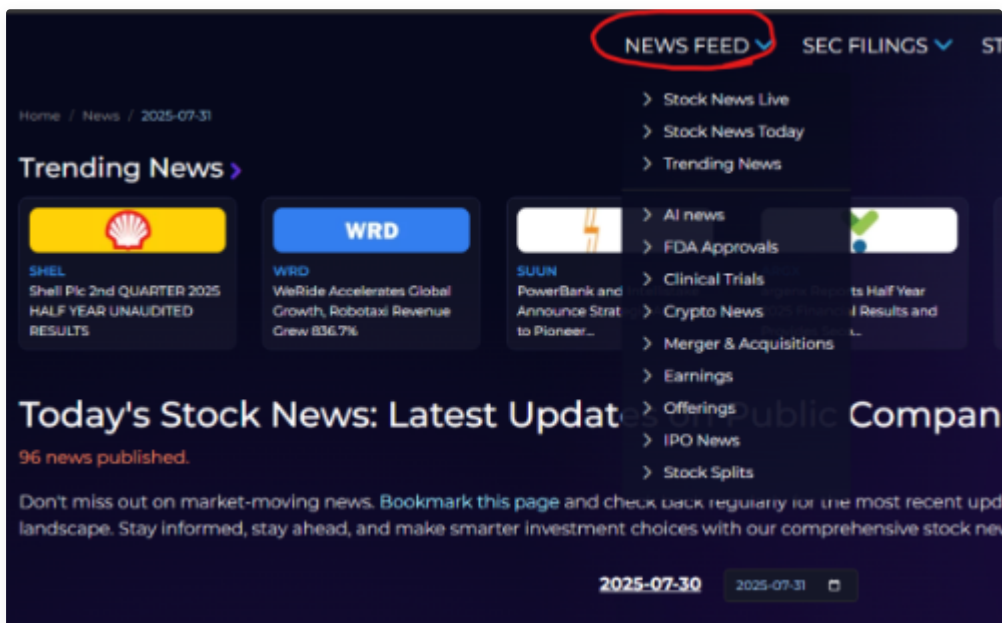
- 저녁 7시 ~ 9시: 가장 많은 호재가 나오는 구간
- 저녁 8시 ~ 10시: 가장 강한 종목들이 터지는 시간

영어가 부담스럽다면 크롬 브라우저를 깔고 자동 번역을 켜면 된다.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못 쓰는 사이트가 아니다.

Stocktitan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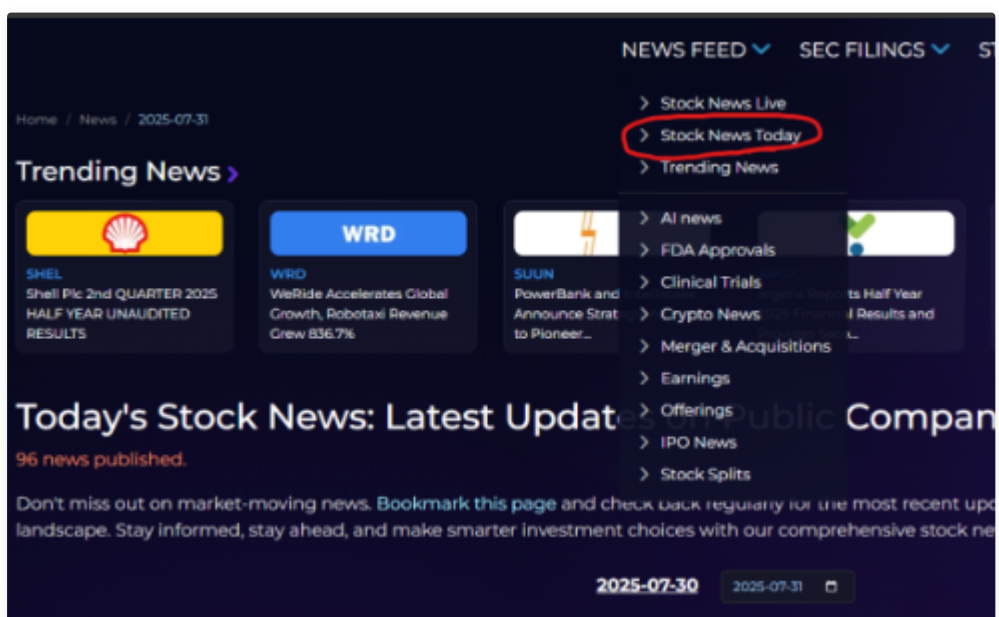
사용법은 단순하다.

- 사이트 접속 후 상단 "News Feed" 클릭



▲ 상단의 News Feed 메뉴

- 그 안에서 "Stock News Today" 메뉴로 이동



— 끝. 여기가 실시간 호재가 뜨는 메인 페이지다.

무료 회원은 뉴스가 30초 정도 늦게 뜬다. 유료 회원은 2~5초 안에 올라온다. 나는 유료로 쓰고 있다. 이 정도 시간 차이가 매매 결과를 갈라놓을 때가 많아서 충분히 값을 한다고 본다. 처음에는 무료로 써보고, 익숙해지면 그때 유료로 넘어가도 늦지 않다.

호재 1 — 코인 관련

코인 관련 호재는 한때 "무조건 폭등"이었다. 비트코인 재무 회사 설립이라는 한 줄만 떠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어떤 종목은 천장을 모르고 갔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시장이 달라졌다.

이제는 단순히 "코인으로 재무를 설립한다"는 호재만으로는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음전(시초가 대비 하락)하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시장이 학습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코인 호재가 나오면 비교 분석을 해봤다. 그 결과 폭등하는 종목과 가지 않는 종목 사이에 명확한 패턴이 보였다.

CHECKPOINT · 폭등하는 코인 호재의 공통점

시가총액이 작고 + 유동주식수(1,500만 주 이하) + 거물급 인사가 함께 붙는 조합.

내가 지켜본 바로는 코인 호재로 폭등한 종목 대부분이 "코인 재무 설립 + 거물급 인사" 조합이었다.
거의 공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코인 호재가 뜨면 무조건 "뒤에 다른 요소가 또 붙어 있는지" 먼저 확인했었다.
 만약 코인 재무만 단독으로 있다면, 초반에 진입한 뒤 분봉이 위로 솟는 시점에 매도했었고, 더 올라도
 미련을 두지 않았다. 못 먹은 것일 뿐, 잃은 게 아니니까.

*참고: 종목명 앞에 K가 붙어 있거나, CEO가 한국인이나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나는
 거의 매수하지 않는다. 경험상 좋은 결과가 거의 없었다.*

호재 2 — 바이오

호재 중 가장 자주 뜨는 게 바이오다. 그런데 의외로 바이오는 단순하다.

일단 "특허 출원"은 매수하지 않는다.

특허는 누구나 낼 수 있다. 같은 기술이라도 표현만 살짝 바꾸면 출원할 수 있고, 출원이 곧 등록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저 "우리가 이런 걸 신청했다" 수준의 뉴스다. 이걸 보고 매수하는 건 도박에
 가깝다.

내가 바이오에서 노리는 건 두 가지다.

BIO TARGET

1, 2, 3상 결과 + 완전관해

정리하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한다.

- 임상 결과 발표 (1, 2, 3상 중 어느 것이든)
- 결과 안에 "완전관해(Complete Response)" 문구 포함
-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음
- 발행 주식수가 적고, 시가총액이 낮음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바이오 종목 중에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한 종목을 본 적이 거의 없다.

■ FDA 승인은 어떻게 보는가

FDA 승인 호재는 조금 다르게 본다. 내가 노리는 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라는 문구다.

패스트 트랙은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대해 FDA가 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제도다. 이 문구가 호재에 들어 있고, 동시에 치료가 까다로운 질병에 해당한다면 매수에 들어간다.

매도 시점은 양봉(상승 봉)이 길게 두 개 나올 때. 그 시점에 매도한다. 더 올라도 미련을 두지 않는다. 욕심을 내다 음전을 맞으면 그쪽이 훨씬 큰 손실로 돌아온다.

실전에서의 어려움

"그러면 시가총액도 봐야 하고, 주식수도 봐야 하고, 호재도 분석해야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보니까?"

맞는 말이다. 호재가 떠서 분봉이 솟는 데까지 1~2분이면 충분하다. 그 안에 모든 걸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쓰는 방법을 공유한다.

SETUP

준비물: 모니터 2대

- 한쪽 모니터: 증권사 화면 (HTS 또는 MTS 미러링)
- 다른 쪽 모니터: stocktitan 호재 피드

호재가 뜨면 즉시 티커를 복사해 증권사 종목정보에 붙여 넣는다. 종목정보 → 더보기를 누르면 시가총액과 발행주식수가 한 화면에 나온다. 그 화면을 보면서 호재 본문을 동시에 읽고 매수 여부를 판단한다.

시가총액	502억 8,959만원	실제 기업 가치 ②	140억 396만원
기업명	DARE BIOSCIENCE INC	대표이사	Sabrina Martucci Johnson
상장일	2017년 7월 20일 2005년 설립	발행주식수	14,559,502주 26년 5월 4일 기준

▲ 증권사 종목정보 화면 — 시가총액과 발행주식수를 한 번에

연습이 필요한 동작이다. 처음에는 손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1챕터에서 작은 돈으로 연습하라고 강조한 것이다.

기준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매수하지 않는다.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거른다.**

물론 기준에 안 맞아도 천장을 뚫고 가는 종목을 자주 본다. 그때마다 "살 걸"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다.

내 매매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못 먹은 건 손해가 아니다."

시장에 종목은 매일 새로 등장한다. 안 사서 후회하는 것보다, 사서 잃는 쪽이 훨씬 더 큰 타격이다.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빗투 시절의 나로 돌아간다.

CHAPTER SUMMARY

- > 호재는 저녁 8~9시가 핵심 시간대.
- > 코인 호재는 "코인 재무 + 거물급 인사 + 작은 시총 + 적은 유동주식수" 조합.
- > 바이오는 특허 출원은 무시. 임상 결과 + 완전관해 + 무부작용 + 작은 시총.
- > FDA는 "패스트 트랙" + 난치병 조합. 매도는 양봉이 길게 두 개 나올 때.
- > 모니터 2대로 호재와 시총·주식수를 동시에 본다.
- > 기준 하나라도 안 맞으면 거른다. 못 먹은 건 손해가 아니다.

03

호재 분석하기

호재가 떴다고 해서 다 매수하는 게 아니다.
1~2분 안에 머릿속으로 돌리는 분석 흐름.

앞 챕터에서는 "진짜 호재인지 가짜 호재인지" 구분하는 큰 틀을 잡았다. 이번 챕터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다.

호재가 났다고 해서 다 매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같은 코인 호재여도 폭등하는 종목이 있고 그냥 죽는 종목이 있다. 같은 바이오 호재여도 마찬가지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호재의 디테일을 얼마나 빠르게 분석하느냐"다.

이번 챕터에서는 호재가 났을 때 1~2분 안에 머릿속으로 돌리는 분석 흐름을 정리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내가 실제로 쓰고 있는 방식이다.

■ 호재 분석의 3단계 흐름

나는 호재가 뜨면 항상 다음 순서대로 본다.

- 1단계: 호재의 종류와 강도 판단
- 2단계: 종목의 구조 확인 (시총, 유동주식수, 희석 가능성)
- 3단계: 시장 분위기와 시간대 체크

이 셋을 동시에 본다. 한 가지만 보면 무조건 함정에 빠진다. 호재만 좋다고 들어갔다가 시총이 너무 커서 안 움직이는 경우도 흔하다.

1단계: 호재의 종류와 강도

호재는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본다.

(1) 본질 호재 — 실제로 회사 가치가 변하는 호재

FDA 승인, 임상 결과 (완전관해), M&A 확정, 대형 계약 체결 같은 호재다. 이건 회사의 미래 현금흐름이 실제로 바뀐다. 가장 강한 호재고, 보통 가장 큰 폭으로 움직인다.

(2) 테마 호재 — 시장 트렌드에 올라타는 호재

코인 재무 회사 설립, AI 사업 진출, 양자컴퓨팅 관련 발표 같은 거다. 회사 본질은 안 바뀌어도 "테마"라는 이유로 자금이 몰린다. 단기 폭등은 가능하지만 다음 날 음전도 흔하다.

(3) 기대 호재 — 아직 결과가 안 나온 단계

"임상 신청", "특허 출원", "파트너십 논의 중" 같은 거. 본질이 아니라 가능성만 있는 호재다. 나는 이런 건 거의 매수하지 않는다.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4) 함정 호재 — 발행/희석을 가리려고 던지는 호재

이게 제일 위험하다. 회사가 ATM, ELOC, 전환사채 같은 희석 도구를 갖고 있을 때, 일부러 호재를 터뜨려서 주가를 띄우고 그 위에서 매도하는 패턴이다. 호재 자체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결국 발행으로 끝난다.

2단계: 종목 구조 확인

호재가 좋아도 종목 구조가 안 받쳐주면 안 움직인다. 내가 매수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다음 네 가지다.

- 시가총액
- 유동 주식수 (Float)
- 발행 주식수 (Outstanding)
- 최근 SEC 공시 (특히 S-1, S-3, 8-K)

앞의 세 가지는 증권사 종목정보에서 1초면 본다. 문제는 네 번째다.

KEY POINT

SEC 공시는 함정을 피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S-3 신고서가 최근에 올라왔다면 ATM이나 발행이 임박했다는 뜻이고, 8-K에 PIPE 공시가 있으면 곧 풀릴 물량이 있다는 뜻이다. 호재가 떠도 이런 게 있으면 나는 무조건 거른다. 못 먹어도 후회 없다.

3단계: 시장 분위기와 시간대

같은 호재여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강세장 = 호재가 더 크게 먹힌다.

나스닥이 빨갛게 달리고 있고, 마이크로캡 섹터가 활발하면 호재 한 줄에도 200% 이상 가는 종목이 자주 나온다. 이런 날은 평소보다 진입 기준을 약간 풀어도 된다.

약세장 = 호재가 죽는다.

나스닥이 파랗고 시장 전체가 무거우면, 아무리 좋은 호재가 떠도 그날만 잠깐 오르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날은 평소보다 더 보수적으로 본다. 차라리 매수 안 하고 관망한다.

아, 이런 날은 중국관련 주식이 판을 치니 지켜보는 것이 좋다. 중국 주식은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9할이기 때문이다.

시간대도 중요하다. 앞 챕터에서 말한 것처럼 저녁 8시~9시가 핵심 구간이다. 그런데 같은 호재여도 다음 시간대에 나오면 효과가 다르다.

- 프리장(저녁 5시 이전): 거래량 적어서 호재 와도 잘 안 움직임
- 프리장 중반(저녁 8시 ~ 9시 30분): 변동성 가장 큼, 호재 강하게 작용
- 프리장 후반(저녁 10시 ~ 10시 30분): 호재 효과 미미, 추세 매매 구간

실전: 분석 체크리스트

호재가 뜨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돌린다. 1분 안에 끝내야 한다.

호재 자체

- 어느 카테고리인가? (본질 / 테마 / 기대 / 함정)
- 이전에 비슷한 호재가 있었나? 그때 결과는?
- 호재에 거물급 인사나 대형 파트너가 붙어 있나?

종목 구조

- 시가총액이 작은 편인가?
- 유동주식수가 적은가? (1,500만 주 이하 선호)
- 최근 S-3, S-1, 8-K 공시 없었나?

시장 환경

- 나스닥 분위기는?
- 지금이 어느 시간대인가?
- 같은 시간대에 다른 강한 종목 있나?

이 아홉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명확히 "아니다"가 나오면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해도 비중 줄여서 들어간다.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 호재만 보고 종목 구조 안 봄

호재가 너무 좋아 보여서 시총이나 발행주식수 확인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다. 시총이 큰 종목은 같은 호재여도 못 움직인다. 1조짜리 회사한테 1억짜리 계약은 호재가 아니다.

실수 2 — 어제 좋았던 패턴이 오늘도 통할 거라 생각함

어제 호재로 200% 간 종목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 같은 호재가 또 200% 갈 거라는 보장은 없다. 시장은 학습한다. 어제 통한 패턴은 오늘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실수 3 — 호재 떠서 이미 올라간 종목 추격 매수

호재 보고 차트 켜는데 이미 50%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때부터 들어가는 건 늦다.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이미 차익 실현 중이다. 추격 매수는 거의 항상 손실로 끝난다. 차라리 다음 호재를 기다리는 게 낫다.

2026년 호재 트렌드

그러면 2026년에는 호재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밑에 써주겠다.

호재 1 — 바이오

2026년에 들어서고, 바이오 주의 호재는

- 뉴스 제목에서 긍정적인 혹은 최상위 결과 발표
- 사모 자금 조달
- FDA 승인

이 3개로 분류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사모 자금 조달은 금액에 따라 조금씩 변동폭이 있으니 호재가 작용하는 티커의 유동 주식수와 시가총액을 보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호재 2 — 계약, 수주

계약건과 수주건은 어떠한 종목이든 상관없이 마이크로캡(유동주식수가 적고, 시가총액이 낮은) 이라면 어느정도는 수익을 주는 것 같다.

호재 3 — 합병, 파트너십

합병과 파트너십은 항상 꾸준히 수익을 주던 뉴스다. 다만 어떤 회사가 어떻게 합병을 하고 파트너십을 맺는지 뉴스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주로 올라가는 패턴은 지분을 사들이거나, 반대로 지분을 주는 [역합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면 대부분 수익을 안겨줬었다.

호재 4 — 테마

이 테마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2025년은 코인으로 정말 핫한 한해였었다. 그래서 뉴스 제목에 코인 회사를 설립하고 자금을 조달한다는 뉴스만 나왔다고 하면 기본으로 5배 이상은 항상 올랐었는데, 이 패턴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뉴스를 계속 보면서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어야 한다. 어떠한 뉴스에서 어떻게 내용이 나왔고, 어떤 식으로 펌핑이 되었는지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뉴스도 똑같이 그렇게 올라간다면 그건 테마주에 거의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홍콩 이 5개의 나라의 종목은 사지 않는 걸 추천한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지만 미국 본토가 아닌 제도로 우회해서 상장한 케이스라 개미들 시드를 쪽 빨아먹고 도망가는 아주 악질인 녀석들이다.

CHAPTER SUMMARY

- > 호재 분석은 3단계: 호재 종류 → 종목 구조 → 시장 환경.
- > 호재는 4가지: 본질 / 테마 / 기대 / 함정. 함정 호재가 가장 위험.
- > 종목 구조에서 SEC 공시 확인이 결정적이다. S-3, 8-K 체크.
- > 같은 호재여도 시장 분위기와 시간대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 > 9개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아니다"면 매수 안 한다.
- > 호재만 보고 추격 매수하지 마라. 다음 호재를 기다려라.

CHAPTER FOUR

04

나만의 단타 매매법

진입, 비중, 매도, 그리고 심리.
시행착오로 만든 나의 매매 루틴.

앞 챕터들에서 호재를 보는 법, 호재를 분석하는 법까지 다뤘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실제로 어떻게 매매하는가"를 정리한다.

이 챕터는 내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든, 나만의 매매 루틴이다. 누구나 따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한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았다"는 사례로 봐주면 좋겠다.

"매매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아무리 좋은 기법이 있어도 본인 손이 따라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 매매법은 단순하다. 복잡할수록 흔들리니까.

매매 전 준비

내가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점검하는 것들이 있다.

- 그날의 컨디션 — 잠을 못 잤거나 집중이 안 되는 날은 하지 않는다.
- 시장 분위기 — 실적발표가 있는 날에, 우량주에 자금이 몰리는지 확인한다.
- 계좌 상태 — 전날 수익이든 손실이든, 감정이 남아있으면 그날은 쉰다.

이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매매하지 않는다. 시장은 매일 열린다. 오늘 안 한다고 못 사는 게 아니다.

진입 시점

호재가 떴고, 분석도 끝났다. 이제 언제 진입하느냐가 문제다.

ENTRY POINT

호재가 뜨고 나서 "첫 번째 양봉"이 나올 때 진입한다.

호재가 뜨자마자 들어가는 건 너무 빠르다. 가짜 호재일 수도 있고, 시장이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다. 분봉 차트에서 첫 양봉이 뜬다는 건 "시장이 이 호재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이때 중요한 건 거래량이다. 양봉이 나와도 거래량이 안 따라오면 가짜 신호다. **평소 거래량의 최소 5~10배 이상** 터져야 신뢰할 수 있다.

비중 조절

나는 한 종목에 시드의 30% 이상은 절대 넣지 않는다.

비중 조절은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30%를 넘기지 않는다. 시장은 내 확신을 무시한다. 한 번 잘못 들어가면 30%로도 충분히 아프다. 50%, 70%로 들어갔다가는 회복이 어렵다.

나는 보통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 1차 진입: 시드의 25% — 첫 양봉에서
- 2차 진입: 시드의 30% — 추세가 확인되면 추가
- 최대 비중: 시드의 60% — 그 이상은 절대 안 넘긴다

I 매도 시점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다. 매도를 못 하면 매수를 잘해도 의미가 없다.

나는 매도 기준을 세 가지로 정해뒀다.

(1) 목표가 도달 — 진입가 대비 +30% 이상이면 절반 매도

일단 절반은 챙긴다. 남은 절반은 더 가도 좋고, 빠져도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끌고 간다.

(2) 양봉 두 개 뿔 — 분봉에서 큰 양봉이 두 개 연속으로 뜨면 매도

이건 앞 챕터에서도 말했던 룰이다. 두 개 양봉이 길게 나오면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 거기서 욕심내면 음전 맞는다.

(3) 손절 — 진입가 대비 -10%면 무조건 매도

손절선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는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복할 거야"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그 생각이 빗투의 시작이다.

I 절대 하지 않는 것들

내가 매매하면서 "이건 절대 안 한다"고 정한 것들이 있다.

- 물타기 — 떨어지는 종목에 추가 매수하지 않는다.
- 야간 보유 — 단타는 그날 안에 끝낸다. 다음 날까지 들고 가지 않는다.
- 커뮤니티 추천 — 누가 추천한 종목은 일단 거른다.
- 복수 매매 — 손실 보고 나서 "되찾으려고" 들어가는 매매.
- 레버리지 — 빚으로 매매하지 않는다. 한 번 깨져봤으면 충분하다.

이 다섯 가지를 안 지키면 결국 빗투 시절로 돌아간다. 매매법이 아무리 좋아도 이 규칙을 어긴다면 다시 무너진다.

심리 관리

매매에서 가장 어려운 건 기법이 아니다. **심리다.**

수익이 나면 자만하고, 손실이 나면 조급해진다. 둘 다 매매를 망친다.

내가 지키는 심리 원칙은 단순하다.

- 수익 났을 때 일정 부분은 출금한다. 계좌에 두면 또 잃는다.
- 손실 본 날은 그날 더 매매하지 않는다. 복수 매매는 무조건 진다.
- 매매 일지를 쓴다. 잘했든 못했든, 왜 그랬는지 기록한다.

매매 일지를 쓰기 시작한 뒤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빈도가 줄었다. 사람은 자기 실수를 잘 잊는다. 기록해두면 안 잊는다.

CHAPTER SUMMARY

- > 매매 전 컨디션·시장·감정을 점검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쉰다.
- > 진입은 호재 후 첫 양봉 + 거래량 폭발일 때만.
- > 한 종목 비중은 시드의 60% 이내. 분할 진입 활용.
- > 매도 룰: +30% 절반 매도 / 양봉 두 개 매도 / -10% 손절.
- > 몰타기, 야간 보유, 커뮤니티 추천, 복수 매매, 레버리지는 절대 안 한다.
- > 매매 일지를 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여기까지가 내 매매법이다. 화려한 기법도 아니고, 매번 수익이 나는 방법도 아니다. **하지만 이 룰을 지키는 한 큰 손실은 나지 않는다.** 매매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큰 손실을 피하는 일이다.

이 글을 마치며

이 글을 쓰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였다. 누가 이런 걸 미리 알려줬다면, 나는 빗을 지지 않았을 거다. 그게 이 글을 쓴 이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책에 적힌 내용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시장은 매년 다르고, 같은 패턴도 어느 순간 통하지 않는다. 내가 2025년에 썼던 코인 호재 기법이 2026년에는 거의 안 먹힌 것처럼, 지금 적은 내용도 시간이 지나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시장을 읽는 눈'이다."

이 책에 적힌 룰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처음에는 그대로 따라 해보고,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만의 룰을 만들어 가야 한다. 시장은 살아 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함정이 되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다.

FINAL MESSAGE

주식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나도 한때는 모니터 앞에서 밤을 새우고, 차트만 들여다보면서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였나 돌이켜보면, 빛과 불면증 정도였다. 시장은 매일 열리고 기회는 또 온다. 오늘 못 먹어도, 내일 먹으면 된다.

잠을 충분히 자고, 운동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라. 그러고 나서 매매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오히려 그쪽이 매매도 더 잘 된다.** 컨디션이 좋아야 판단이 흐려지지 않으니까.

이 책을 읽고 한 명이라도 빗투를 피하고, 한 명이라도 본인만의 매매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 글을 읽는 모두 안전한 매매, 행복한 매매하시길.

— 쉽다쉬웁